

시흥시 자전거음악축제 기획제안 종합보고서

수행기관 : 이모션웨이브 아트

2015.06



담당부서 : 이모션웨이브 아트 사업기획팀

사업책임자 : 장순철

참여연구원 : 김경수, 조명근, 서유리

자료담당자 : 김현영

목 차

1. 시흥시 정보	1
2. 시흥시 축제 기획 및 제안 배경	1
3. 공업도시의 이미지 제고 사례	3
4. 타 도시 축제 사례	5
5. 시흥시 자전거 음악 축제 가안 구성	9
6. SWOT 분석	16
7. 세계 자전거 축제 사례	23
8. 행사 개요 및 주제 설정	28
9. 자전거 음악 축제 콘셉트	29
10. 축제 프로그램 구성	31
11. 자전거 음악 축제 사이트 선정 및 운용방안	33
12. 운영계획	44

1. 시흥시 정보

- 위치 : 경기도 중서부
- 면적(km²) : 134.56
- 행정구분 : 15행정동(30법정동)
- 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 인구 : 423,264명(2014년 기준)
- 행사 및 축제 : 물왕예술제, 갯골축제

2. 시흥시 축제 기획 및 제안 배경

1) 시흥의 기존 축제

(1) 시흥갯골축제

〈시흥갯골축제〉는 2011년 경기도 대표축제로 지정되었고,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20선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는 지명도 있는 축제이다. 이에 따라 시흥갯골축제는 "갯골은 지금 생태환경 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름다운 바다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골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 물왕예술제

물왕예술제는 1950년대 초부터 시흥시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물왕저수지'의 명칭을 사용하여 〈물왕예술제〉라 정하고, 열악한 예술문화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일년에 한번 시흥시 일원에서 1993년부터 예술단체들이 심혈로 마련하는 각종 창작예술 활동으로 시흥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전문예술문화축제이다.

→ 시흥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자 예술제

(3) 시흥예술제

시흥예술제는 2014년까지 5회 째 맞는 예술제다. 아직 역사가 깊지 않은 예술제여서 명시된 개념은 나와 있지 않다. 시흥예술제는 오케스트라, B-boy공연, 시흥시민들의 가요제, 초대가수 등 시민들의 참여와 교양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은 편이었다.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술제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예술제를 기획할 때 선발주자인 시흥예술제를 보면서 잘되는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예술제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시흥출신청소년예술제

시흥출신청소년예술제도 역사가 깊지 않고 유망한 시흥출신 예술인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따로 개념은 나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시흥출신에 유망한 미래의 예술인들이 서는 무대인만큼 시흥시의 입장에서 촉망받을 수 있는 예술제라고 생각된다. 시흥출신청소년예술제는 시흥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예술 꿈나무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시흥시민에게 선보이는 예술제다. 시흥출신 예술인들은 시흥시민들이 느끼기에 같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예술제에 프로그램을 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처럼 시흥시와 시민들이 예술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흥시만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예술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흥에 새로운 예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축제가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이슈

〈우리나라 축제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축제 관련 총 지출비용은 3조 4,826억 원에 이르며, 국내 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12조 8,9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힘입어 전국에서 수많은 축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전국에 555개나 된다. 문체부 기준의 축제는 3일 이상 축제가 열리며, 지역주민과 지역단체 혹은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특산물축제 등을 총망라한 문화관광예술축제를 말한다. 문체부 기준 외의 축제까지 합하면 총 8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도 소모성 유사축제가 너무 난립하자 기준을 두어 지원금액과 지원축제수를 줄이는 등 축제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문체부는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축제수는 758개이며, 서울이 113개로 가장 많고, 울산이 11개로 가장 적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축제의 필요성

첫째, 축제를 통한 관광객과 축제 산업의 상호작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광매력도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콘텐츠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창조산업으로서의 가치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축제 산업과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은 삶의 활력을 높여주고 놀이문화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한다.

셋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류와 소통은 여가활용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3) 시흥의 축제와 지역시민의 요구

(1) 시흥시의 축제와 시민들의 의견

① 시흥갯골축제

〈시흥갯골축제〉는 2011년 경기도 대표축제로 지정되었고,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20선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는 지명도 있는 축제이다. 이에 따라 시흥갯골축제는 "갯골은 지금 생태환경 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름다운 바다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골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생태공원에서 염전체험과 소금을 직접 만들어보고 수차를 둘러보며, 다양한 생태학습 체험의 축제가 될 것이다.

갯골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뜻하는 말로 갯벌골짜기, 갯고랑의 준말이다. 시흥갯골은 내륙 깊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내만갯골로 칠면초, 나문재, 통통마디, 모새달, 붉은발농게, 방게류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여름과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철새가 날아들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검토 중이다.

①-1 긍정적 의견

이번 축제는 갯골생태공원에 시흥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또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갯골 자체의 가치와 생태공원의 경관과 함께 소금만들기 체험 등과 같이 갯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생태공원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직접 찾아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다"며 "앞으로 아이들과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①-2 비평적 의견

시흥시가 시민의 혈세 3억을 들여 개최한 갯골축제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홍지영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시가 개최한 갯골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20톤 분량의 소금조차 타 지역에서 조달해오고 연 음식경진대회, 이름도알 수 없는 삼목어 등 축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갯골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축제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 축제의 수익구조를 다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등 인재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형성, 성공한 축제 운영의 Know-How를 전수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달라고 주문했다.

- > 갯골이라는 시흥시만의 특색을 이용하여 테마로 잡은 축제
- > 말로만 듣고 긴가민가하여 찾아오기는 주저하는 외부시민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냥 즐기식 축제가 아니라 학습 역량이나 예술적인 감각 등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주제 선정은 좋았지만 그 내부에 축제의 영성한 부분과 껴 맞추는 듯 억지스러운 프로그램은 배제해야 합니다.

② 물왕예술제

물왕예술제는 1950년대 초부터 시흥시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물왕저수지'의 명칭을 사용하여 <물왕예술제>라 정하고, 열악한 예술문화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일년에 한번 시흥시 일원에서 1993년부터 예술단체들이 심혈로 마련하는 각종 창작예술 활동으로 시흥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전문예술문화축제이다.

<물왕예술제>는 지역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예술행사로 시민들은 예술인들의 창작공연을 직접 감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술문화의 가치와 참뜻을 인식하고 시민 모두의 예술행사가 되어 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남녀노소 동아리예술 단체, 청소년예술 동아리 단체 등 시민들이 예술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질 높은 예술을 향유하며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②-1 긍정적 의견

시흥시민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였다.

②-2 비평적 의견

축제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외면받으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토론자들은 물왕예술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물왕예술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흥시축제위원회 정원철 심의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물왕예술제의 정체성을 "타 시군에 비해 차별화된 시흥시의 특징(경관적 아름다움 등)을 예술가는 예술 작품에 드러내어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동제를 통해 축하하는 잔치"라고 정의했다. 거기에 덧붙여 현재 시흥시가 가진 요소를 분석하여 갯벌과 간척의 역사, 시흥9경, 염전 문화, 시화방조제 및 시화공단 조성, 주거지 개발, 군자매립지 개발 등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요인을 발전시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대 김창수 교수는 "물왕예술제에는 예술은 있는데 물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체성 확립과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문화제나 예술제도 지역축제를 지칭하면서 구분을 두지는 않지만 축제와 문화제, 예술제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축제는 일상을 탈피하여 축하하며 제사를 지내거나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로 서양의 카니발·페스티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축제란 축하 제가 어우러지는 문화형식에서 출발하였고 우리나라의 축제는 제사의 성격이 더 강했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희석된 면이 있다. 예술제는 작품 속에 창작성과 미학을 구현하여 발표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술을 수단으로 하여 무엇인가를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김창수 교수는 물왕예술제를 "축제, 예술제, 문화제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들의 잔치마당으로서 남아 있을 것인지, 혹은 외부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왕예술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큰 틀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세부 계획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율을 고조시킨 것은 긍정적.
- > 예술제인 만큼 축제나 문화제와는 다른 정체성 확립 구현이 있어야 함.
- > 시흥시만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확보가 있어야함.

4) 시흥시와 시민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

시흥시는 시흥아카데미 축제학교 심화과정이 지난 20일 첫 수업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10회의 집중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 중심으로 이뤄지며

- ▶ 시흥축제 어디까지 왔나?
- ▶ 축제기획을 위한 상상력 워크숍
- ▶ 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시흥갯골축제 발전방안
- ▶ 무주 반딧불축제

등의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 후 교육생들은 자발적 연구모임과 축제 시민 모니터단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와 행정이 공동의 힘으로 지역축제를 추진해 나가는 수평적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며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학교는 시민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토대로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마을축제리더 양성과정이다.

-> 시와 시민들이 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중이다. 시흥시와 시민들이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축제에 대한 잠재적 예상 참여, 수요, 지원 자원들 존재.

3. 공업도시의 이미지 제고 사례

□ 미국 볼티모어

- 조선, 정유 등 공업도시
- '마약과 범죄'로 도시 이미지

○ 이너 하버 - 바닷게 세계화 성공

- 1960년대부터 재개발 프로젝트
- '하버 플레이스&갤러리' 대규모 식당가 및 쇼핑몰, 국립볼티모어 수족관, 볼티모어 해양박물관, WTC(세계무역센터)가 자리한 중심가로 변모
- 지역 특산물인 바닷게를 전문레스토랑 단지화, 다양한 기념품
-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볼티모어 인구 : 63만여명)

- 볼티모어 체사피크만 '이너 하버(내항)'

○ 전통 건축물 복원을 통한 도시 재창조

- 100년 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건물에 카페와 서점 등이 입점
- 메이저리그 야구팀 볼티모어 오리올스 홈구장을 20세기 초 복고풍으로 재단장
- 전통이라는 도시이미지로 쇠신

○ 찰스센터플랜

- 지난 58년 기업가들의 비영리조직인 볼티모어광역권위원회가 볼티모어시와 함께 '찰스센터플랜'을 수립
- 민관협력기구인 '찰스센터 관리공사'가 조직되면서부터 볼티모어 도시 재생 시작

○ 역사건조물보전위원회(CHAP)

-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전통건축물이 사라질 위기

→ 시와 시민이 뜻을 모아 지난 64년에는 역사건조물보전위원회(CHAP)를 조직
→ 70년대 초반에 펠스포인트, 페더럴 힐 등 80개의 국가등록 및 지역역사지구를 지정해 5만6000여 동을 보전

○ '믿음 캠페인'

- 볼티모어는 70년대부터 범시민 '믿음 캠페인' 전개하면서 공동체를 강조해 도시 이미지 제고

- 도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볼티모어시는 지난 97년에 비영리조직인 '라이브 볼티모어 홈센터' 설립

- '전략적 이웃만들기플랜(SNAP)'을 추진해 볼티모어로 오라며 주택 알선에도 적극적

- 재개발 플랜도 이너 하버 인근의 펠스포인트, 리틀 이태리지구 등 20여 개 지구로 확대

cf.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박사

- "볼티모어는 내향 친수공간 재개발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 "근대 부산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북항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과 부산항의 문화를 제대로 찾아내고 도심을 새롭게 할 콘셉트를 제대로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 20세기 초까지 조선 및 중공업의 융성으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멋진 도시 중 하나

- 20세기 들어 글래스고 중공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

- 제조업분야의 고용이 급격히 감소함 - 이 시기에 소폭 증가를 보인 서비스업이 점차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요구 받음

- 지역 경제 침체 국면을 맞아 글래스고는 1980년대 들어서며 도시이미지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

○ 추진과정

- 1980년대 초에 'Glasgow's Miles Better' 캠페인에서 출발

- 쇠퇴하는 공업의 대안으로 문화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 도시의 이미지 쇄신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1983년에 예술축제와 오월 축제의 개최로부터 시작
- 1985년에는 '글래스고 액션'이라는 민관합작기관을 설립하여 도시관광을 활성화, 도시 중심부를 홍보
- 1987년에는 시정부에 축제담당부서가 신설
- 1988년 가든축제 개최와 대규모 교통박물관의 이전 등을 통해 도시관광 매력들을 집중화
- 1990년에는 유럽의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영광

- 1991년 '글래스고 얼라이브(Glasgow's Alive)' 캠페인, 근본적 도시재생 수반

- 도시재생 사업
- 1991년에는 글래스고 개발청이 설립되어 이미지 캠페인에 수반된 글래스고 콘서트홀, 뷰캐넌쇼핑센터 등의 건설이 이루어져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수반
- 2004년 'Glasgow's Scotland with Style': 품격있는 글래스고 캠페인 전개
- 세계적인 건축가 맥켄토시를 비롯하여 건축, 디자인, 패션, 음악, 예술 등에 독특한 글래스고 스타일이 있음을 홍보, 캠페인을 펼친 결과 점차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이 확산
- 2005년 글래스고 시티마케팅 사무국(Glasgow City Marketing Bureau-GCMB)을 설립

〈결과〉

- 약 18만명의 관광객 증가
- 2,100만 파운드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창출
-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스위스 다보스

→ 인구 11,000명인 조그만 스키 휴양도시

○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브랜드 마케팅

- 조그만 휴양도시에 세계적인 포럼을 유치
- 도시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 문화, 관광, 경제 투자에 대한 매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행사자체의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됨

□ 영국 리버풀

→ 18세기 노예무역의 중계항, 훌륭한 항만을 가진 철강산업도시

→ 배후지의 산업기반 미흡, 급감하는 미국, 서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량 감소로 공업도시로 입지가 쇠퇴하게 되어 어둡고 가난한 철강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

○ Repositioning

- 1980년 후반부터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리포지셔닝
- 인구 51만의 항구도시인 리버풀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많이 있고 유명한 리버풀 교향악단이 있는 등 수많은 건축과 문화유산을 보유
- 영국의 전설의 그룹 비틀즈(Beatles)의 고향
- '문화 중심도시조성'의 비전으로 리버풀 브랜드 리포지셔닝 전략을 추진

4. 타 도시 축제 사례분석

〈국내〉

1. 전주 막걸리골목축제

- 추진 목적

막걸리를 마시지 않는 연령층과 고객들에게 막걸리가게의 고급화, 컨셉화를 통해 쉽게 다가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전통주인 막걸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

- 기획내용 및 실행계획

(1) 일시 : 매년 8월 셋째 주 금~일(PM 6시~ AM2시)

여름휴가의 끝자락인 8월 셋째 주로 하여금 마지막 피서지로 막걸리 골목축제를 선택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으며, 8월달에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

(2) 장소 : 삼천동 막걸리골목

(3) 구성

- 축제기간동안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있는 17개의 막걸리가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컨셉으로 가게 운영

- 골목의 특성상 3개의 입구를 개방해 운영. 각 입구에는 컨셉별 막걸리가게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안내지도 및 야외공연 행사 프로그램 소책자 제공

- 가게별 컨셉 : 막걸리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 가게, 막걸리 직접 만들어보는 가게, 막걸리를 담는 그릇과 어울리는 안주 소개하는 가게, 클럽분위기의 퓨전막걸리

가게 2030세대를 위한 가게, 클래식하고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가게, 옛 한옥 재현한 가게, 등

- 기대효과

(1) Strength

다양한 컨셉의 가게를 통해 평소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음, 전주에 있는 막걸리 골목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하여 막걸리 골

목의 화합을 다짐. 타지에서 방문한 손님들을 축제기간동안 한꺼번에 유치하여 다
른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2) Weakness

술을 주제로 하는 행사이자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 이뤄지는 행사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이 다소 제한됨. 주차시설 부족,

(3) Opportunity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근처 숙박업체와 연결하고 간이 택시 정류장을 근처에
설치하여 택시업체 및 대리기사 업체와도 연계가능

(4) Treat

술을 주제로 하는 행사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 내재

2.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가평에서 국제적인 재즈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한국의 재즈를 더 나아가 아시아
의 재즈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만드는 것

▷해마다 초가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국제 재즈 페스티벌(일명 JJ페스티벌)
▷2004년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 12여국의 30여 개 팀이 참가한 것을
시작

→ 자라섬 뿐 아니라 가평읍으로 확대되어 행사 진행

▷ 현재 해외15개팀, 국내 20여개 팀, 총 180여명에 이르는 아티스트들이 자라섬
내 다섯 개의 무대에서 연주

▷ 또한, 2007년부터는 축제기간에 예선 본선을 걸친 콩쿨 참가자들의 재즈 경연
을 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축제 브랜드 상품을 꾸준히 개발, 발전시켜 지역브랜
드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로써 확고한 입지를 다짐

⇨ 국내 최초의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시작되어 대중들에게 양질의 음악축제를 보
여주고 재즈 애호가들의 높은 욕구와 각종 매스컴이 강조하는 음악 페스티벌의 필
요성까지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확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페스
티벌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음

3. 보령머드축제 (98~)

▷ 매년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월 중순부터 시작

- 성수기에 비해 관광객의 수가 다소 적다는 단점을 ‘머드’라는 독특한 주제를 반영함으로써 방문객의 상승을 유발

▷ 보령머드축제 경쟁력

- 보령머드축제의 방문객 수와 방문객 재방문 비율의 지속적 증가
-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약 10%가 해외거주 관

광객

- 관광상품으로서 보령머드축제가 실질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을 의미

-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 2009년 기준 130,661원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

- 축제 소재의 독특성으로 인한 해외 언론홍보 노출 극대화

▷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이미지 홍보
- 문화 수출

(중국 대련시 금석탄 해수욕장에 머드원료와 축제운영 노하우 제공)

- 지역개발효과
- 성수기 연장효과

▷ 결론

보령 머드축제는 여름철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활성화, 지역특화상품인 머드상품의 판촉 등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관광축제의 성공모델로 평가되며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음

〈국의 사례분석〉

□ 삿포르, 시드니, 퍼스, 에든버러 국제 예술제 비교 분석

예술제	삿포르 국제예술제	시드니 페스티벌	퍼스 국제예술제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엠블럼				
규모	10여개국 62명의 예술가 시내 전역이 전시장	500여명의 아티스트 80여개의 공연 100만명의 관람객	1000개 이상의 갤러리 참여	관람객 수십만명 / TV사청 1억여명 테마에 따른 100여개의 공연 영국 최대 규모의 축제
주요행사	'도시와 자연'을 주제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 개최 (자연과 도시의 공생)	최신의 외국작품 소개 및 공연	갤러리 축제 작가 페스티벌	클래식, 오페라, 무용 주요공연 밀리터리 타투 퍼레이드 에든버러 북, 필름 페스티벌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등
특징	2014년이 제 1회 국제 예술제	시드니의 여름인 1월 개최 크리스마스 및 신년휴가와 맞물려 많은 관람객 유치	연극, 클래식 등 정통 예술에 초점을 맞춤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영국, 유럽의 문화부흥을 이끌기 위해 시작되어 매년 8월 3주간 펼쳐지는 예술제
전문가 평가	탄광도시, 눈의 도시 이미지를 창의적 예술도시로 탈바꿈함.	- 최신 외국작품 소개에 주력하여 호주 국내 예술계의 비판 - 1997년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호주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 중 하나가 됨	시드니와 더불어 호주 내 최고/최대의 예술제로 평가	오페라, 클래식, 연극, 춤,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공연팀을 초청하여 꾸미는 세계 최대의 공연축제

5. 시흥시 자전거 음악 축제 가안 구성

1. 독창성

자전거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는 국외에는 선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처음인 만큼 독창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 자전거에 대한 기사로 본 시장규모 및 고객분석

1) 기사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소위 '자출족'인 김종환 씨는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아파트를 나선다.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망원동까지 약 25km의 거리를 2년 가까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김종환/회사원 : 지하철이나 버스의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차비도 절약이 되고 따로 운동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자전거 출퇴근 인구는 2009년 28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44만명으로 60%나 증가했다. 작년 기준 국내 자전거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성인 인구 4명 중 1명 꼴이다. 회원수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동호회만도 500개가 넘는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즐기는 가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한 남한강 자전거 길은 이미 명소로 인기가 높다.

[양명근/서울 길동 : 주말마다 나올 때도 있고요.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더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나오죠.]

성인 4명 중 1명은 '자전거족'...1천만 시대 '눈앞' [JTBC] 2012.04.10 07:45 / 수정 2012.04.10 08:11

1965년 삼천리자전거의 미국 첫 수출 이후 해외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전거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내 임금이 상승하면서 원가경쟁력을 상실, 해외수출이 급감했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보급이 늘면서 국내 판매도 저조해져 자전거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전거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피로를 느낀 이들에게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유행처럼 번진 게 계기가 됐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교수님과 젊은 CEO 등이 심심찮게 브라운관에 등장했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등장한 건강 이슈는 레저물로서 자전거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화선 역할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자전거길 등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렸고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최근엔 고유가, 친환경 등의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레저 및 스포츠 기능에서 다시 이동수단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는 FORTUNE KOREA 2013년 5월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최소 1,000만명(출처:안행부)으로 예측하고 있는 요즘 '자전거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바구니 달린 생활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취미 생활이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기사]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자전거 라이더'가 최근 급증하면서 직접 부품을 구매해 자전거를 고치는 '튜닝족'도 덩달아 늘고 있다. 30일 오픈마켓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 달간 자전거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신장했다. 부품 중에는 비교적 교체 시기가 짧은 안장용품(80%)과 휠·타이어부품(65%) 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신장했다.

자전거를 오래 타면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장 커버 등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산악이나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변속 기어 판매가 30% 증가하는 등 변속·주행 부품을 직접 사서 교체하는 수요도 늘었다. 헬멧·고글(60%) 등 자전거 안전용품, 두건·마스크(15%)와 자전거 전용 장갑(20%) 같은 방한용품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여성 라이더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자전거용품 구매가 40% 늘었다. 남성 구매는 3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남성이 60%, 40대 여성이 65% 증가하는 등 건강관리와 동호회 활동 등으로 자전거를 타는 중년층의 구매가 눈에 띄

게 많아졌다.

옥션 이준우 스포츠팀장은 "자전거는 조립비용이나 수리비용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최근에는 부품을 직접 사서 조립하는 라이더도 많다"며 "특히 안장이나 핸들은 쉽게 조립·수리가 가능해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라이딩 열풍에 '튜닝족'도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기자
입력시간 : 2014/10/30 06:46:05수정시간 : 2015.01.08 15:53:43

2) 축제 시장규모

-> 자전거는 1990년대 초반까지 고가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 이동수단이었다. 하지만 국내 임금이 상승하면서 원가경쟁력을 상실, 해외수출이 급감하였고,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보급이 늘면서 국내 판매도 저조해져 자전거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또한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등장한 건강 이슈는 레저물로서 자전거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화선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자전거길 등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렸고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최근엔 고유가, 친환경 등의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레저 및 스포츠 기능에서 다시 이동수단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족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음악은 남녀노소 흥을 돌아 줄 수 있는 요소다. 그러므로 자전거 음악 축제에 대한 수요와 시장규모는 충분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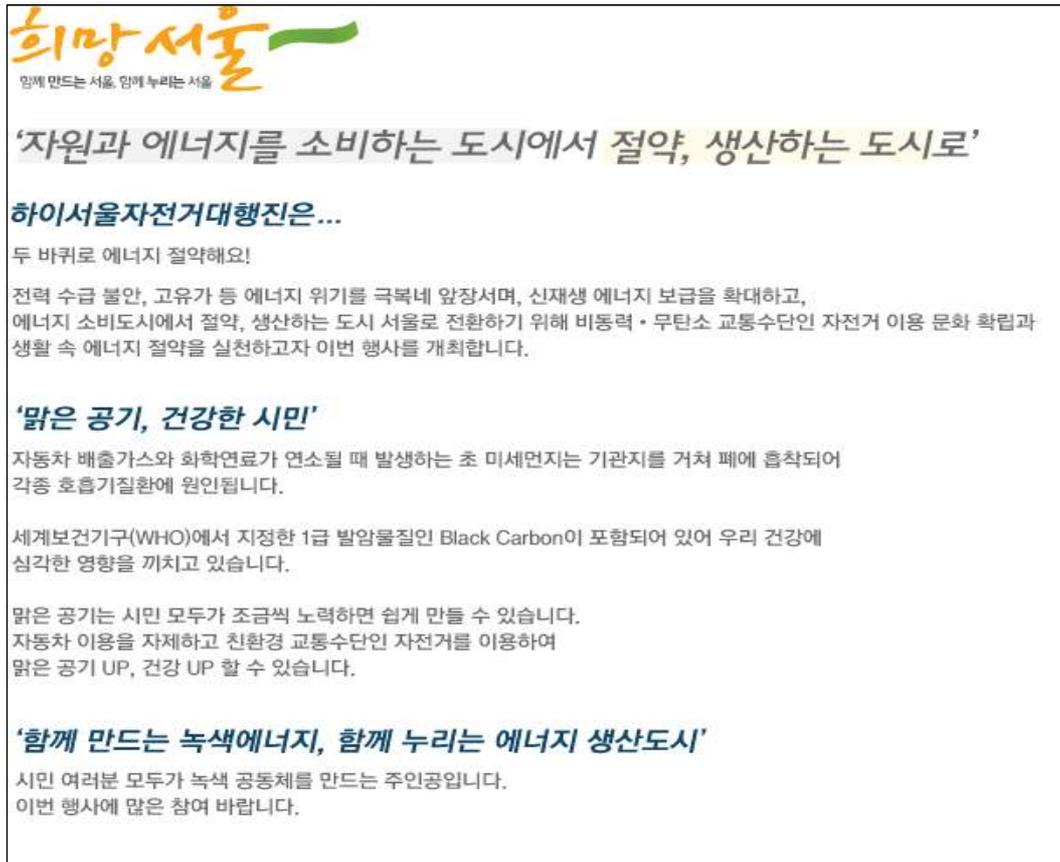
3) 축제 타겟층

-> 타겟층은 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녀노소 모두이다. 자전거 사용인구 1000만 명 뿐 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거나 타보았던 사람들 심지어 타볼 기회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타겟팅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가 음악이라는 요소까지 가미한다면 자전거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까지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3. 경쟁환경분석 - 타 도시 축제경쟁요소

1) 각 도시의 자전거 축제

(1) 서울 자전거 축제(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절약, 생산하는 도시로’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은...

두 바퀴로 에너지 절약해요!

전력 수급 불안,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절약, 생산하는 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확립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합니다.

‘맑은 공기, 건강한 시민’

자동차 배출가스와 화학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초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호흡기질환에 원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Black Carbon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는 시민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맑은 공기 UP, 건강 UP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녹색에너지, 함께 누리는 에너지 생산도시’

시민 여러분 모두가 녹색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은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소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미지 개선 및 시민들의 자연 환경 보호 실천 유도를 위해서 당일치기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축제로 이번에 공단지역에 있는 시흥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전거 음악 축제를 기획하는 데에서도 많은 자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있는 자전거축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고,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큰 경쟁요소와 위험요소로 작용될 것 같다.

(2) 송도 자전거축제



2012년 제1회로 시작된 송도 자전거축제는 아직 2년 밖에 되지 않은 축제로 메인 사이트마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홍보도 부족하고 지역시민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시흥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송도신도시라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 축제로 예상된다.

조사결과 상주자전거축제, 울산자전거축제, 부산자전거축제, 세종자전거축제, 창원자전거축제, 경주자전거축제 등 자전거 열풍에 힘입어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축제라는 타이

틀을 걸고 자전거축제를 열고 있지만 서울 이외의 도시에는 그다지 축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한 축제 모두 당일치기라는 점과 자전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거나 음악과 자전거를 별개로 생각하여 주간에는 자전거 야간에는 자전거를 배제한 채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가요제처럼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자전거와 음악의 조화를 이루는 시흥 자전거 음악 축제(가제)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리스크 요소 체크

1) 자전거 사고 증가 추세

떡하니 차도를 질주하는 자전거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갑자기 튀어 나온 자전거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자전거족이 크게 늘었지만 인프라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험한 욕설과 손가락 욕이 난무하곤 한다.

사고 발생 건수도 2000년 6352건에서 2012년 1만29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

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된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만2136건의 자전거 연관 사고가 발생해 148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300명 정도는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상자도 많을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한 전용도로 등 시설 인프라는 부족해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2)상주자전거축제

경북 상주에서 축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1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9.3) 오후 5시 40분쯤 상주시 화산동 시민운동장에서, 상주자전거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인 [MBC 가요콘서트]에 인파가 몰리면서 11명이 뒤엉켜 숨지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은 상주성모병원(9명)과 상주적십자 병원(2명)에 각각 안치됐고, 부상자들도 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현장에는 7시로 예정된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1만명가량의 방청객들이 모였으며, 한 출입구 앞에 5천여명이 기다리다 출입구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던 중,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뒷 사람들인 순식간에 뒤엉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상주시민운동장에는 정문 1곳과 직문 4곳이 있는데, 오늘 사고는 3번 직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 병력 30명과 행사 주최측의 자체 용역경비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유명 가수를 보기 위해 찾아온 60대 이상의 노인층 피해가 컸으며, 숨진 사람들도 대부분 60대 이상 여자와 10대 아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자전거에 가장 위협을 주는 요소는 바로 자동차다. 그래서 타 도시의 자전거 축제를 보아도 자전거축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차 통제다. 자동차 통제구역을 정할 때는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며 시흥시 내에 이미 설치되

어있는 자전거 도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안가 안전요소들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 동안의 질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질서 통제를 위한 인력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경찰, 의경경력, 해별대전우회, 모범택시교통통제단체)

6. <SWOT분석>

Strengths

1. 시흥시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2.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3. 시흥시의 축제 기획에 대한 열망
4. 자연을 생각하는 시흥시의 노력



<Strengths 1, 2>

시흥 시민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 증가

(시흥 시민뉴스 기사 중)

- ◆ 시흥예술제
2014년까지 5회 째 맞는 예술제
오케스트라, B-boy, 시민가요제, 초대가수 등 다양한 공연
- ◆ 시흥출신청소년예술제
유망한 시흥출신 예술인들이 꾸미는 무대

시흥시와 시민들이 예술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욕구 충족을 위해 시흥시만의

독창적인 예술제 필요



<Strengths 3,4>

Weakness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첨단화 되지 않은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강함
2. 주변도시(안산, 부천,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인지도, 인구
3. 번번한 시외버스터미널도 없는 대중교통이용 불편

시화공단이라는 명칭이 시흥스마트허브라는 별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정식명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아직도 시화공단이라는 인식이 강함.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지역 이미지가 강함.

<자료>

<Weakness 1>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12.8% 차지

반월·시화 국가공업단지가 활기를 띠던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터줏대감은 내국인 공단 근로자들이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생활형편이 나아지자 그들은 본오동과 중앙동 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나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던 이들에게 1997년 외환위기는 청천벽력이었다. 정든 터전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한두 명씩 이곳을 떠났다. 공동화 현상

과 함께 원곡동과 그 주변부는 급격히 슬럼화됐다. 그 당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워갔다. 산업연수생이 시화·반월공단의 대체인력이 된 셈이다.

산업연수생 초창기에는 대부분 중국동포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들어서면서 원곡동에는 선술집 자리에 중국 꼬치집이 한둘씩 생겨났고 다문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경기 회복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배후인 시화·반월공단이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000명을 밑돌던 게 2008년에 3만1427명으로 늘어났다.

〈주간경향 신문기사 발취〉

인천시 인구 : 약295만 명

부천시 인구 : 약88만 명

안산시 인구 : 약77만 명

시흥시 인구 : 약42만 명

〈출처 : 네이버〉

〈Weakness 2〉

또한, 인지도 면에서 인천, 부천,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흥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명시(약35만 명)에게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시흥하면 서울시 근천구의 시흥동을 떠올리고 있고, 시흥은 안산의 변두리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다.

〈Weakness 3〉

시흥종합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정왕1동 1745-6)에 위치한 시외버스 ·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고속버스 전산망상의 터미널 번호는 195이다. 2004년 2월 17일에 개장해 운영해 왔지만[1], 연계교통이 잘 갖추어 지지 않아 운행하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개장 초기 명칭은 시화종합버스터미널이었지만 날짜미상의 날로 부터 시흥종합버스터미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정왕동 49블럭에 위치한 시흥시외버스터미널은 부천시의 간이 터미널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있어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터미널이 없어서 시외로 나가려면 안산터미널이나 인천터미널 수원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로 가서 이동하는 현실이다.

Opportunities

1. 발전하고 있고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
2. 자전거족의 계속되는 증가추세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추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해안 시대 경기 시흥시의 발전 가능성을 추켜세웠다. 김 지사가 지난 8일 시흥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는 좋은 입지조건과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9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문에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시흥은 무궁 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시화간석지, 염전, 그린벨트, 토취장 등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흥시 발전을 위해 "중동~계양을 잇는 외각도로를 갖길을 이용해 개선중"이라며 "제3경인고속도로도 설계과정에서 부터 시흥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경기도 끼뉴스 2006년12월25일 기사 발췌

<Opportunitie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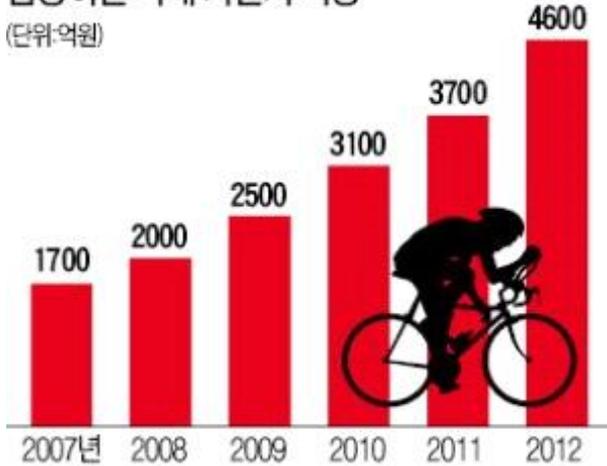
또한, 배곧신도시 도시계획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립 등 시흥시는 신도시로의 계획을 진행 중.

〈Opportunities 2〉

계속 증가하는 국내 자전거 시장

급증하는 국내 자전거 시장

(단위: 억원)



자전거 증가율이 연도별로 정리된 도표는 없었지만 자전거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봐서 자전거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portunities 3〉

요즘 공모전 홍보물을 보면 환경ucc공모전이나 친환경, 그린마케팅 관련 ucc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서 기업들은 그 추세를 받아들여 환경을 위한 마케팅이나 제품 기획을 하는 추세입니다.

Threats

1. 안산 벨리 락 페스티벌이 경기도 중서부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2. 자전거 열풍으로 인한 타 도시들의 자전거 관련 축제 메이킹
3. 자전거 사고 증가로 안전관리의 필요성

〈Threats 1〉

현재 안산 벨리 락 페스티벌이 히트를 치면서 경기도 중서부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이렇다 할 대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시흥시만의 독창적이고 또 타 도시 시민들까지 끌어 모을 수 있는 공감되면서 대중적인 축제가

필요하다.

<Threats 2>

관련 검색: 자전거 축제

상주 자전거 축제 송도 자전거 축제
하남 자전거 축제 불꽃 축제 자전거
금산 자전거 축제 세종 시 자전거 축제
세종 자전거 축제 여의도 불꽃 축제 자전거
서울 자전거 축제 자전거 페스티벌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에 자전거 축제라고만 검색해보아도 전국에 수많은 자전거 축제들이 존재한다. 자전거의 증가추세와 축제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얻으려는 각 지방 도시의 의지와 맞물려 자전거 관련 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 한 자전거 축제는 아직 국내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고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붙여 자전거 음악 축제를 한다면 아무리 타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 축제를 만든다고 할 지라도 시흥시의 축제만의 독창적이고 의미를 가진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reats 3>



모든 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축제로 자전거사용자들이 급격히 한 장소에 몰릴 경우 많은 사고가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세계 자전거 축제 사례

- ▷ 3월5~8일 타이페이 사이클(Taipei Cycle)전시회
 - 세계 3대 전시회이자, 아시아 최대의 자전거 전시 행사.
 - TWTC (대만세계무역센터) 난강(Namgang)에서 진행
 - 세계 유수의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 전시



- ▷ 3월 1~10일 케이프 어거스 픽 앤 페이 사이클 투어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진행
 - 약 35,000명이 참가
 - 3월 1~2일 MTB 챌린지
 - 3월 6일~8일 라이프사이클 엑스포(Lifecycle EXPO)와 사이클 투어
- 등록
- 3월 8일 트리사이클 & 어린이 사이클투어
 - 3월 9일 사이클 투어
 - 사이클 투어 시상식 등이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행사로 진행
- 케이프 어거스의 메인 행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약 95km 코스를 달리는 사이클 투어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전거 대회



▷ 5월 17~18일 삼천리 자전거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 국내 산악자전거 경기 중 최고 규모의 경기, 산악자전거 대부분종목이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대회
-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
-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진행
- 1,500여 명 이상의 참가자와 관람객 포함 3,000여명의 참여
- 대회 종류 : 크로스컨트리(XC), 다운힐 (DH) 4크로스(4X), 슈퍼-D, 크로스컨트리 엘리미네이터(XCE) 등



▷ 5월 31일 ~ 6월 1일 코리아 데모라이드 (Korea Demo Ride)

- 온라인 자전거 매거진 '바이크매거진'이 주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시승행사 진행
- 국내외 정상급 브랜드 40여 곳이 한자리에 모여 시승 행사
- 다양한 브랜드의 자전거, 신제품들을 직접 체험 가능, 직접 구매 판단 가능

▷ 7월 5일~27일 투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세계 최고의 스테이지 로드 경기

- 세가지 스테이지

▷ 매스 스타드 스테이지(Mass-start stage)

: 모든 참가자가 동시에 출발해 대열을 이루던 도중에 출발신호를 받음

▷ 개인 타임 트라이얼(ITT)

: 개별로 출발해 시간을 측정

▷ 팀 타임 트라이얼(TTT)

: 팀단위로 출발해 5번째 도착하는 라이더의 기록 측정

▷ 8월 8일~17일 크랭크웍스 휘슬러(Crankworx Whistler)

- 크랭크웍스 레두 알프스와 유사한 성격의 MTB축제이자 경기



-10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종류의 프리스타일 산악자전거 스킬을 경쟁하는 경기가 펼쳐짐

- 축제기간동안 사진과 영상 콘테스트, 어린이들을 위한 경기 키즈웍스, 다양한 브랜드의 전시 및 시승, 파티, 주말에는 대중성 있는 콘서트를 진행

▷ 6월 23일 ~ 9월 14일 라 뷰엘타(Lavuelta)



- 스페인에서 개최
- 투르 드 프랑스, 지로 디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그랜드 투어로 꼽힘
- 스페인을 일주하며 경주

▷ 8월 27일 ~ 30일 유로바이크 (Eurobike)



- 독일 남부의 호반도시이자 산업도시인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개최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인터바이크 (interbike), 타이완에서 열리는 타이페이 사이클과 함께 세계 3대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
- 각 브랜드의 다음해 신제품을 발표하는 장소로 유명
- 자전거 신제품 발표 및 무역, 패션쇼와 시승행사, 전시장 근처에서의 캠핑, 콘서트, 참관 브랜드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9월 8일~12일 인터바이크 (interbike)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전거 무역 전시회
- 생활에 사용되는 어반자전거, 스포츠 자전거, 프로 대회용 자전거 등을 구분
- 마지막날에 일반관람객 참관가능
- 출시 예정 제품들을 미리 시승할 수 있음

▷ 11월 타이완 자전거 코스프레 대회 & 자전거 일주



- 자전거 코스프레 대회와 르웨탄 지역에서 자전거 일주 행사 개최
-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는 자전거 퍼레이드를 진행
- 자전거 일주는 르웨탄, 타이루거 협곡 등 주요 자전거 코스를 완주하는 비경쟁 자전거대회로, 완주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증과 완주메달을 수령
- 자전거 코스프레, 파티 등과 더불어 각종 행사들이 진행돼 세계 여러 나라의 사이클 선수 및 여행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8. 행사개요 및 주제 설정

- 행사개요
- 축제명 : 국문 : 시흥시 힐링 바이콘서트
영문 : Si-Heung Healing BiKconcert
- 주제 : “음악과 자전거, 자연 세 바퀴로 달리는 콘서트!”
- 슬로건 : 자전거와 음악! 생명도시 시흥
- 기간 : 2016년 이후 5월 중
- 장소 : 시흥시 Green Way(물왕저수지-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
- 주최 : 시흥시
- 주관 : 이모션웨이브 아트
- 축제의 주제 설정
- 로고



- 디자인 컨셉
- ◆ 친환경을 상징하기 위해 기본 연두색
- ◆ 테이프 안에 자전거 모양은 자전거의 활동적인 요소를 뜻함
- ◆ 기본이 되는 테이프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표현

9. 자전거 음악 축제 콘셉트

1. EWArts(Emotion Wave Arts)와 시흥시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

경기도 시흥시는 현재 시흥시마트허브(시화공단)의 위치로 공업도시, 산업도시라는 인식이 타 도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조차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는 생명도시 시흥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민들은 새롭고 시흥시만의 독창성을 가진 새로운 축제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EWArts는 자연친화적인 의미를 가진 자전거와 남녀노소 모두 흥을 돋울 수 있는 음악을 결합하여 시흥시만의 특별한 축제 시흥시 자전거 음악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1-1. 행사 목적

(1) 사회적으로 자연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연환경보호를 직접 경험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

(2) 시흥시의 기존이미지 탈피

자전거라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이용한 시흥시의 산업 도시적 이미지 재고

(3) 새로운 대학 축제 문화 형성

시흥시와 주변 도시 대학들에게 너무 유용적이지 않고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 형성

(4) 지역상권 및 지역회사 발전

축제의 후원 협찬, 프로모션을 우선적으로 지역 상권으로 우대해줌으로서 지역경제의 공생 도모

1-2. 행사 개요

● 주제 : 즐기는 자연축제

자전거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행사 및 자전거를 타면서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음악으로 모두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

● 시간 : 연1회 3일 간

● 장소 : 시흥시 전 지역

● 대상 : 전 세계인

● 주요 행사

서해를 달리다(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행진대회)

자전거 프리스타일 대회(자전거 묘기대회),

자전거로 전기 만들기(자전거를 이용한 전기제품 가동),

자전거와 함께하는 음악 페스티벌(자전거를 타고 차례로 설치된 무대 이동)

1-3 행사 구성

(1) 소주제별 부스프로그램

자전거 마켓, 음악박물관, 자전거박물관 등으로 나누어 진행

(2) 대학 예술제

주변 대학들의 동아리 팀, 초청 공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제 진행

(3) 푸드코트

지역사회 우선의 음식점과 스폰서 제공처의 연계

1-4 행사 홍보방안

(1) 포스터제작

한 장의 이미지 안에 축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야 함

(2) SNS홍보

SNS에 포스터와 홍보문구를 올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

(3) 블로그 홍보

SNS와 함께 파급력이 강한 홍보수단

(4) 홈페이지 제작 운영

다채로운 프로그램 소개, 사람들의 많은 참여 유도, 준비된 축제라는 이미지 구축

(5) UCC 홍보

UCC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페스티벌을 홍보할 수 있는 UCC공모
를 받음

(6) 인터넷 기사와 잡지 홍보, 배너제작

10. 축제 프로그램 구성

<장소>

물왕저수지 : 물, 낚시, 배경, 수중무대, 불꽃놀이, 분수

연꽃테마파크 : 연꽃, 사진, 풍경,

갯골생태공원 : 갯골, 물, 갈대밭, 캠핑, 넓은 공간, 수영장,

<프로그램>

1. 음악 들으며 Green Way

Green Way길옆에 스피커들을 놓고 라디오처럼 음악 틀어주고 사연 보낸 것 입
어주면서 진행(항시)

2. 음악, 자전거 관련 심야영화 상영

연꽃 테마파크에 심야영화를 상영해줌(ex Begin Again)

3. 예술제

참가팀을 받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자신들의 끼를 발산 할 수 있도록 무대설치
및 공연(시흥출신 댄스 팀, 시민들 신청, 타 도시 사람도 출전가능)

4. 연예인 초청

조용하고 발라드 등 힐링할 수 있는 노래를 들려줄 가수들 초청

5. 캠핑

축제의 열기를 지속해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캠핑장소 마련

6. 자전거를 이용한 공연

자전거를 이용한 프리스타일 공연

7. 자전거 마켓

자전거족들을 위한 자전거 및 부품 거래 또는 판매, 구매 가능한 자전거 시장

8. 자전거 파크

가족단위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공원 조성(광명 동경기장 처럼 이색 자전거(2인용 자전거)들 대여), 또한 자전거를 이용한 예술품들 길거리 전시

9. 수영장 개방

축제 예상시기가 9월 초여서 낮에는 더울 수 있음 날씨 고려하여 갯골생태공원 수영장 개방(샤워실 완비)

10. 기업부스

시흥시의 기업들을 알리기 위한 특별부스 설치 및 시흥시 기업 홍보

11. 발을 이용한 카약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한 동력을 얻어 그린웨이길 옆 샨강 리프팅

12. 불꽃놀이

엔딩을 장식한 불꽃놀이(불꽃놀이에 음악 겸비 = 여의도불꽃축제처럼)

13. 시흥시 홍보 부스

시흥시 서포터즈들을 활용한 시흥시 알리기 특산품, 기념품 안내

14. 자전거 동력으로 가전제품 돌려보기

시민들의 자전거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프로그램

15. 시민 사진전

축제 장소 내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오는 시민에게 상품증정.

16. 스탬프 받기

자전거타고 Green Way 곳곳에 있는 도장을 받아오면 기념품 증정

17. 버스킹 장소마련

길거리 공연자들이 버스킹 할 수 있을 만한 장소 마련

18. 가을밤 풍등 날리기

밤에는 풍등 날리면서 소원 빌기

11. 자전거 음악 축제사이트 선정 및 사이트 운용방안

시흥시를 흐르는 보통천과 장현천 제방위 농로를 이용하여 조성한 그린웨이는 전원적인 풍경을 간직한 자전거 길로서 코스내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관곡지, 갯골생태공원 등 볼거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자전거 동호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심 속 자전거 도로와 달리 농촌의 자연스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린웨이 중간마다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녹색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쉼터 주변의 나무와 화단에서는 봄에는 꽃잔디, 벚꽃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여름에는 벌개미취,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며 겨울에는 눈꽃이 인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향후 그린웨이는 월곶, 옥구공원, 오이도로 연장하여 도심에서 바다로의 여행길이 될 예정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전거 길

▲ 거리 : 7.5km

▲ 소요시간 : 30~40분

▲ 구간 : 물왕저수지(월미교) ~ 연꽃테마파크 ~ 관곡지 ~ 갯골생태공원

※ 그린웨이는 농기계와 농사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용시 농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농번기(5월~6월, 9~10월)에는 자전거 이용자제 권장

시흥시청 교통정책과 자전거진흥계 031-310-3872

시흥시 '그린웨이' 라이딩 정보

갯골생태공원~연꽃테마파크~물왕저수지~연꽃테마파크~원점회귀...총15km 2시간 소요

경기도 시흥시 그린웨이(Green-Way)의 매력은 자전거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도로가 아니라 지나는 동안 시흥시의 대표관광지인 시흥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

크, 물왕저수지를 거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길이 완공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월곶포구와 옥구공원을 거쳐 오이도까지 다녀올 수도 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옥구공원은 약 13km, 오이도까지는 3km를 더 가야한다.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오이도를 잇는 자전거 도로는 2011년 완비될 예정이다. 그린웨이 내 모든 시설은 주차와 입장료가 무료다.

-> 시흥시 교통정책과 자전거진흥계에 문의해본 결과 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월곶, 옥구공원, 오이도까지의 Green Way 연장은 배곧 신도시 조성과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찾아가는 길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시흥방면~방산교~달월교~월곶교차로~연성제2교차로(갯골생태공원 방면)~갯골생태공원~그린웨이 시작점

▶ 문의 : 시흥시청 문화교육과 031-310-3473, 시흥갯골생태공원 031-310-2985, 연꽃테마파크 031-310-6211, 물왕저수지 031-310-2333
<http://www.siheung.go.kr>

<문제점>

-> 원래 농로길이라 농촌 차량 등의 이동이 잦다.



시장, 시의회위원장 및 시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포동운동장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에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운동장에 진입, 자전거도로 폐쇄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시장, “이용 시간·기간 조정 임시폐쇄” 검토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로를 변형한 자전거도로 ‘Green Way’ 이용 자전거 동호인들과 이곳 호조벌 들녘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며 급기야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가 열린 포동운동장. 김윤식시장의 축사에 이어 또 다른 내빈의 축사가 시작되는 중간 ‘농민도 농사철에 농사짓고 싶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트랙터 5~6대가 운동장으로 진입, 본부석 앞에 진을 쳤다.

이들은 호조벌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로 해마다 농번기철이면 ‘Green Way’ 이용객들과의 빈번한 마찰로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수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재설씨는 “자전거도로 ‘그린웨이’는 농로를

이용해 만든 변형된 도로로 이곳은 분명 농로다. 따라서 트랙터 등 농기구나 농업용 차량의 통행이 우선돼야 함에도 지금은 마치 농민들이 자전거도로에 잘못 들어온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라며 그린웨이 폐쇄조치를 요구했다.

또 다른 농민 안덕재씨는 “바쁜 농사철인줄 뻔히 알면서도 자전거 이용객들은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다.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이 당연히 비켜나야 하는 것처럼 농기계를 마주보고 자전거를 내달리고 그 와중에 사소한 부딪힘이라도 생기면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분개해 했다.

농민들의 하소연에 대해 김윤식시장은 “조성된 그린웨이는 분명 농로인 것이 맞다. 봄·가을 농번기철 일몰 전 등 기간, 시간을 정해 ‘그린웨이’ 임시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농업용 차량의 우선통행 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 명소 중 하나인 자전거도로 ‘Green Way’는 「물왕저수지~갯골생태공원~월곶~오이도」까지 24.2km로 연결돼 있으며 「물왕저수지~갯골생태공원」 구간은 기존 농로를 이용해 조성됐다.

특히 시흥 ‘Green Way’는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이달에 가보고 싶은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자전거 동호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 농로와 자전거 도로 마찰 기사 중 가장 최근 기사가 2009년 이여서 직접 가서 체크해야봐야 할 사항.

-> 시흥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시흥시에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은 Green Way 자전거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Green Way는 본래 농로를 자전거 길로 활용하여 농사차량이나 농기계 전동기도 다니고 있는 길이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주민의 협조와 시흥시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들어가보면 Green Way가 오이도까지 완공되었다는 기사나 블로그글이 있지만 시흥시에 전화해본 결과 배곧신도시 설계와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직접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 오이도까지는 정식 자전거 길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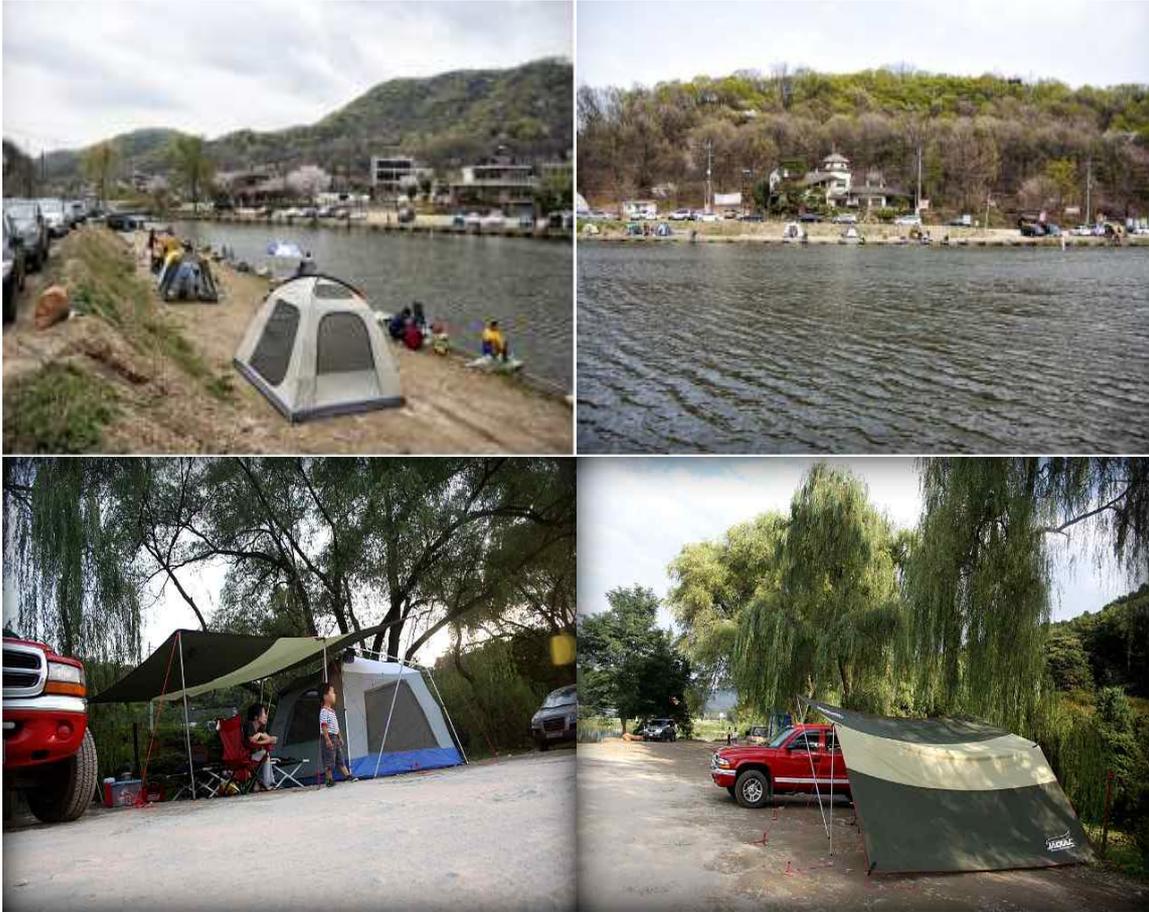
또한, Green Way 코스 중에서 물왕예술제가 열리는 물왕저수지 근처에도 넓

은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갯골생태공원도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축제 장소이기 때문에 축제를 할 때 필요한 부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조사해본 결과, 시흥 Green Way 자전거 도로 만큼 적합한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이다. 추후 Green Way를 방문해봄으로써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 같다.

11-2. 자전거 음악 축제 사이트 운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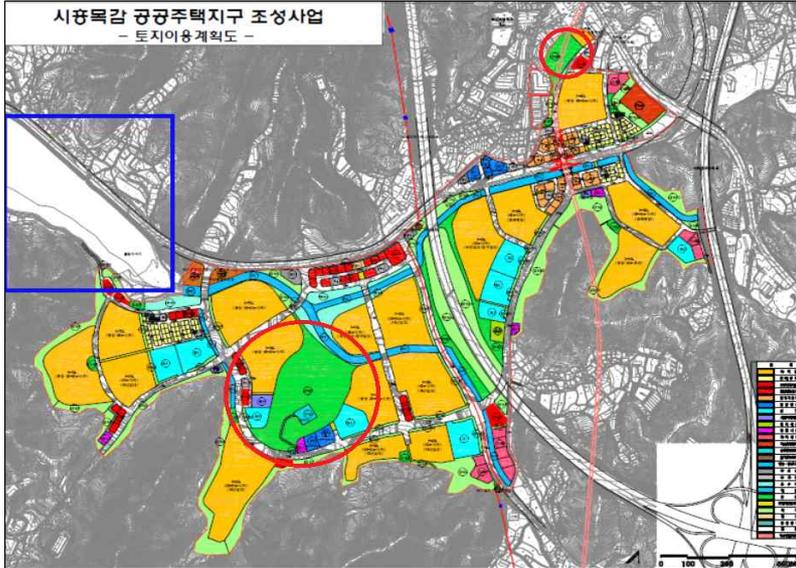
□ 캠핑장 운용



→ 낚시를 즐기는 몇몇 관광객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긴 하지만, 평지 공간이 좁아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운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 대안

(1) 목감 택지지구 이용



(가)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물왕저수지.

(나) 물왕저수지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목감 택지지구는 캠핑장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됨.

(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공원 및 녹지로 이용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장소들을 이용하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2) 갯골생태공원 이용



(가) 그린웨이(Greenway) 마지막 지점인 갯골 생태공원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법

(나) 갯골생태공원은 이미 2012년에 임시로나마 캠핑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장점.

(다) 주차장에서 캠핑이 이루어졌고, 적은인원(약 60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단점.

(라) 목감택지지구에서의 캠핑장 운영이 힘들다면 고려 1순위라고 생각됨. 또한 전용캠핑장이 아니기에 개별 전기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캠핑장비 및 취사도구가 지원되지 않는 점도 단점이며 보완해야함.

(3) 주변 숙박시설 이용

(가) 시흥에 기 존재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나) 주요 숙박시설 정보

시흥관광호텔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31)433-0001

모텔 조이텔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031)318-6600 (관광공사 인증
숙박업소)

벨라지오 관광호텔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31)404-7711

덕수궁 모텔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31)433-0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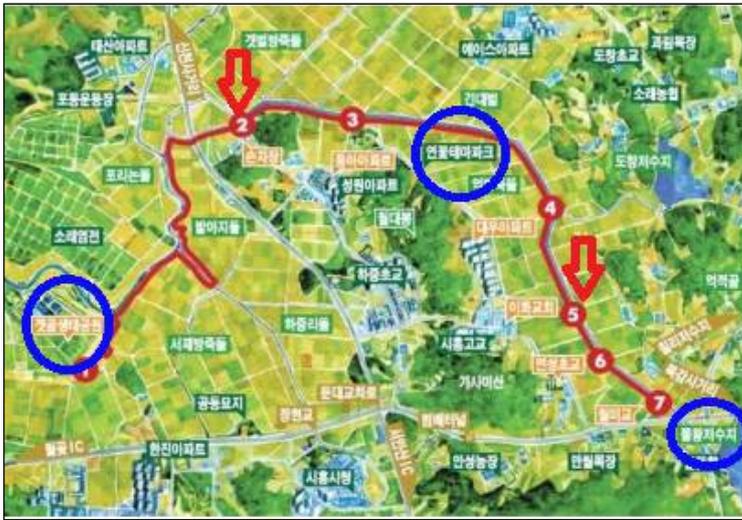
씨사이드 호텔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31)497-2244

(다) 기존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장점

(라) 축제 장소와 동떨어져 있어 응집력 및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

□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시작점인 물왕저수지, 중간에 거치게 되는 연꽃 테마파크, 종착점인 갯골 생태
공원에만 화장실과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린웨이 중간중간에 간이화
장실 및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할 것임.



(1)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주요 사이트(물왕저수지, 갯골 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2) 전체적인 노선, 경로로 봤을 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 즉 2번 과 5번 지점에 간이화장실 및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를 설치해야 함.

□ 주차장 운용

→ 시흥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주차장을 기 보유 중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있음.

(1) 시흥 갯골 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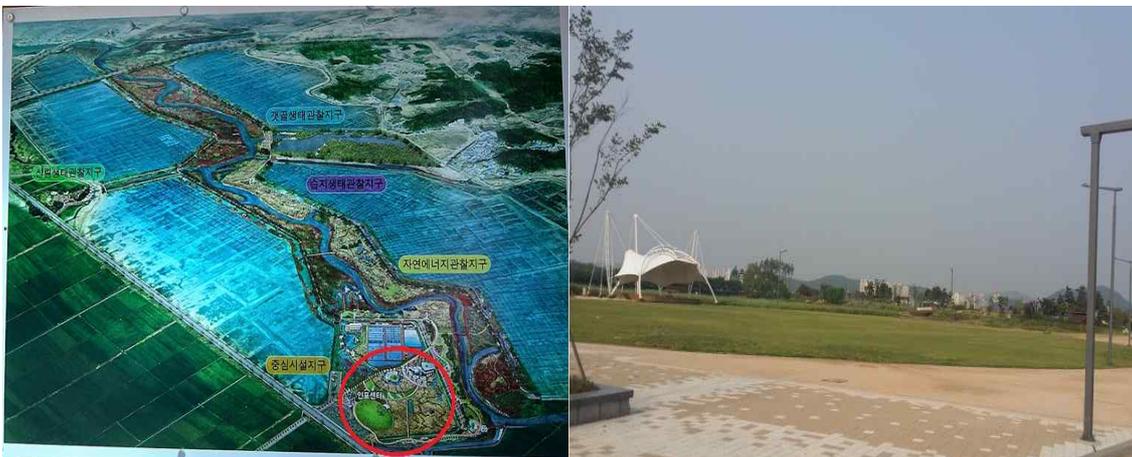
- (가)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이용했을 만큼의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
- (나) 주차공간에 관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사진 및 인터넷 정보 상)

(2) 물왕 저수지

- (가) 물왕 저수지 낚시터를 제외하고는 딱히 주차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음.
- (나) 물왕 저수지 주변에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 (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목감택지지구를 이용해야 함.

□ 공연장 및 무대 설치

(1) 시흥 갯골 생태공원



- (가) 왼쪽 그림의 지도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있는 인포센터 주변 잔디밭을 이용하여 무대설치
- (나) 인포센터 주변의 잔디밭은 오른쪽 그림과 같음.

(2) 물왕저수지

사회 > [수도권] 물왕저수지 생태체험공원 조성

전국뉴스 > 손정훈 기자 >

기사 > 100자평(0)

작성일 : 2010.01.21 03:15

시흥시는 낚시터로 유명한 물왕저수지를 오는 2013년 여가·휴양·생태체험이 가능한 친자연형공원으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물왕동과 산현동에 걸쳐 있는 58만㎡ 규모의 인공저수지인 물왕저수지에 예산 645억원이 투입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습지관찰로, 생태체험학습장, 청소년문화광장 등이 설치된다.



◀ 오는 2013년 여가·휴양·생태체험이 가능한 친자연형공원으로 변신하는 시흥시 물왕 저수지의 계획도. /시흥시 제공

(2010년 1월 조선일보)

- 2010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낚시터로 이용되던 물왕저수지를 생태공원화 한다고 함.
-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않고 있어 무대나 공연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물왕예술제도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임.
- 물왕저수지가 위의 사진과 같은 생태공원화가 된다면 무대 및 공연장 설치는 물론 캠핑장으로의 이용도 가능할 전망.
- 현재 상황에서는 목감택지지구 혹은 연꽃 테마파크에 무대 및 공연장을 설치해야함.

12. 운영계획

운영계획

홍보 계획

▷ 기본계획

(1) 전국적인 홍보와 효율적 홍보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

– 설 전후로 시작하여 축제인지단계, 축제 분위기 고양단계, 언론매체 총동원 및 홍보물 배부단계, 축제기간 중 홍보 및 사후 홍보 단계의 네 단계로 구성

(2) 언론매체 활용 홍보

– 6시내고향, 아침마당, 모닝와이드, 생생정보통 등 생활정보프로그램 협조

– 각종 라디오 방종 진행프로그램에 중간 멘트 협조

– 일간신문, 잡지 등 활용 ; 일간신문 박스기사란 이용 게재,

(3)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축제 관련 홈페이지 제작

'Greenway' 길 안내와 각 장소의 프로그램과 행사안내, 콘서트 초대가수 소개 등

주변 식당 안내 등 각종 정보

– SNS이용 홍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및 카카오프러스친구

(4) 인쇄매체 활용

– 포스터 : 축제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시각적으로 표현

– 팸플릿 : 축제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 축제 일정, 콘서트 공연 가수들 안내

– 엽서, 스티커 제작 : 시흥 그린웨이를 배경으로 한 엽서 혹은 물왕저수지, 갯골 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 행사장소나 시흥시를 대표하는 화면을 배경으로한 엽서제작, 자전거를 이미지화하여 스티커 제작 -> 감성 자극

▷ 실행계획

1. 단계별 홍보

→ 축제인지단계, 축제분위기 고양단계, 언론매체 총동원 및 홍보물 배부단계, 축제기간 중 홍보 및 축제 성과 홍보단계의 네단계로 구성

(1) 축제 인지단계 (설날 전후로 2월까지)

- 주요홍보물 제작·설치 및 배부계획 확정
- 축제 홍보 구체적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언론사에 축제 계획 통보 및 보도협조 요청
-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 개설

(2) 축제분위기 고양시기 (2월 초 ~ 3월 말)

- 전국 홍보를 위한 사전 홍보대상 언론매체 선정 및 협의
- 포스터 배부 시작
- 홈페이지 꾸준히 운영 → 잠재적 참가자들의 기대감 고조
- 포스터 배부

(3) 언론매체 총동원 및 홍보물 배부 및 설치 단계(4월~ 5월 축제 전)

- 언론사 사전홍보자료 제공, 방영의뢰
- 홍보물 설치(버스외부광고, 지하철 광고 등) 및 포스터 배부·부착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터미널, 지하철, 백화점 등)에 팸플릿 배부
-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적극 활용 홍보

(4) 축제기간 중 홍보 및 사후 홍보

- 외부 관광객, 축제 참가자 반응 여론 수렴
- 주요성과분석 및 언론보도 내용 등 축제평가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방안 강구

▷ 운영계획

1) 교통 및 숙박

▷ 교통

물왕저수지 - 연꽃테마파크 - 갯골생태공원

그린웨이의 시적점 혹은 끝점인 물왕저수지와 갯골생태공원의 교통편 조사

◆ 갯골생태공원

갯골생태공원 근처 버스정류장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야함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동양 덱스빌아파트 정류장'

하지만, 갯골 생태공원까지 996m 가량 떨어져 있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 월곶역(수인선), 오이도(4호선)

□ 월곶역 - 갯골생태공원

63번 버스 탑승(월곶역) → 동양덱스빌 아파트 정류장 하차

약 33분 소요, 총 5.26Km

□ 오이도역 - 갯골생태공원

오이도역 → 월곶역 하차 → 63(월곶역) → 동양덱스빌 아파트 정류장 하차

약 44분(도보 19분)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함.

⇒ 월곶역 또는 오이도 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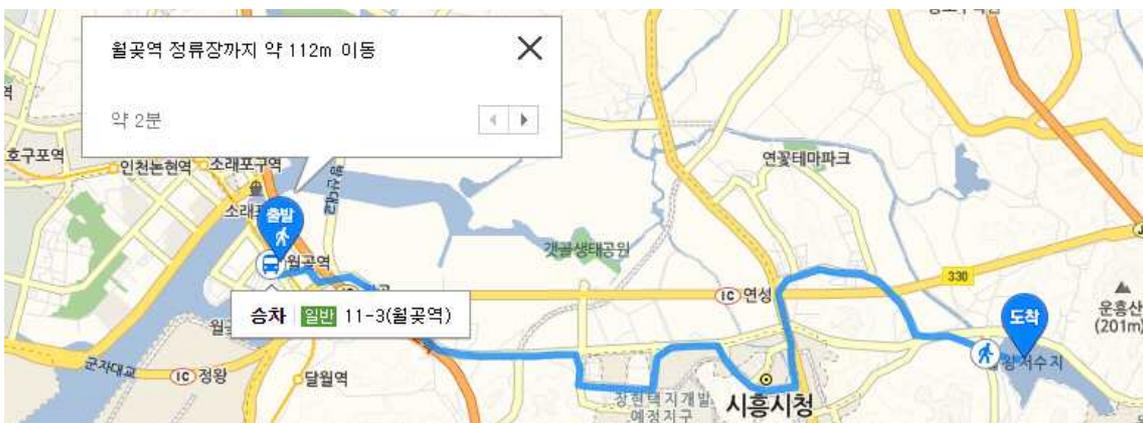
◆ 물왕저수지

물왕저수지 근처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 물왕주유소, 능골마을, 물왕교, 물왕삼거리, 양화다리 등



가장 가까운 지하철 : 월곶역



월곶역 - 물왕저수지

월곶역 정류장까지 약 112m 이동 → 일반11-3(월곶역)승차 후, 물왕주유소 정류장에서 하차 (약 35분 소요, 총 11.82Km)

물왕주유소 : 일반 5602

물왕교 : 일반32, 일반11-3

물왕삼거리 : 일반32, 일반5602, 일반11-3

능골마을 : 일반32, 일반 5602, 일반11-3

양화다리 ; 일반32

일반32, 일반11-3, 일반5602 운행하지만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 축제기간동안 버스 증회운행 혹은 셔틀버스 운영